



## 출산장려 코리아의 '슬픈 그늘'

### 생활고 시달리던 6남매 엄마 아이신발 훔치다 붙잡혀 "남들처럼 키우고 싶었는데"... 양육지원 월 10만원 고작

남편과 함께 6남매를 키우고 있는 A(여·38·광주시 북구)씨. A씨는 15년 전 결혼한 뒤 '아이들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기대감에 중학교 1학년 큰딸 등 6명의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A씨의 생활은 그녀의 기대 처럼 행복하지 만은 않았다. 화물차 운전으로 매달 100만원을 버는 남편의 수입으로는 아이들과 함께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경제적으로 힘들게 지내던 지난 8월, 광주시내의 한 생활용품 매장을 찾은 A씨는 양말 매장

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지난해 태어난 막내딸에게 신기면 어울릴 법한 작고 귀여운 양말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A씨는 몇번이나 양말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A씨의 생활 형편으로 양말 한 켤레도 마음 놓고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다. 매장 종업원이 한눈을 판 사이 몰래 양말을 훔쳐 나온 것이다.

훔친 양말을 신은 막내딸이 마냥 귀엽고 예뻐기만 했던 A씨는 절도 행각을 멈출 수 없었다. 또 A씨가 훔친 물건들도 아이 신발과 속옷 등

으로 다양해지는 등 더욱 대범해졌다.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것이 두렵고 무섭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면 '훔쳐서라도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죄책감마저도 느낄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지난 14일 오전 10시30분. 또 다시 매장에 들어가 딸에게 줄 신발을 몰래 훔쳐 나오던 그녀는 '물건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다'는 매장 점원의 신고를 받고 잠복중이던 형사들에게 붙잡혔다.

절도 혐의로 난생 처음 경찰서까지 가게 된 A씨는 그제야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광주서부경찰은 15일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막내딸을 낳은 뒤 광주시로부터 양육지원비 형식으로 매달 10만원을 받고 있던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8명의 식구가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며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들에게 마음껏 먹이고, 입히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A씨는 또 "당장 내년에는 넷째와 다섯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하다"며 "‘똥난 엄마’가 된 것 같아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영암 F1 현장서 국감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개막을 1주일 앞두고 15일 영암군 삼호읍 코리아인터네셔널서킷(KIC·F1경주장)을 방문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박준영 전남도지사로부터 F1대회 및 경주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전남도 제9면>

## 가정형편 탓 학업 중단 고교생

## 광주·전남, 전국평균의 두배

2명 중 1명꼴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 가정형편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업중단 학생도 급증 추세다.

이상민(한나라당) 의원은 15일 광주·전남, 제주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07년~2009년)간 전국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비율이 52.3%로 전국 최고였다고 밝혔다. 광주는 49.7%로 2위, 전북은 44.7%로 3위였다. 이는 전국평균 29.5%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전체 학업중단

학생 1370명 가운데 681명이 가정형편을 이유로 학교를 떠났고, 전남은 전체 1580명 가운데 826명이 같은 이유로 학업을 포기했다.

또 최근 3년 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 각각 3665명, 4295명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광주는 2009년 학업중단 학생이 3665명으로 전년보다 5.1%, 전남은 4295명으로 전년보다 9.0% 증가하는 등 전국 평균 증가율(4.6%)을 크게 앞질렀다. 이들 학생 44.3%는 학교 부작을 때문에 학교를 그만 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그만둔 학생의 경우 열악한 호남권의 경제사정과 무관치 않다"며 "특히 전남지역에서 매년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이 늘고 있는 만큼 실태파악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은 "전남지역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데다 조손가족, 편부모 가정 등 학습환경이 열악한 탓에 학업중단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zenfoot@kwangju.co.kr

## 광주 출생아 수 6개월 연속 증가

전남 전년동기비 7월 10.2% 늘어 전국 최고

광주·전남의 출생아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14일 통계청의 '월간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전체 출생아 수는 3만7100명으로 이 중 광주는 1100명, 전남은 1400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광주 1019명과 전남 1270명보다 각각 7.9%(81명), 10.2%(130명) 증가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전남보다는 각각 100명과 200명 증가했다.

특히 광주는 전년 동월 대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월 12명(1.

1%), 3월 37명(3.2%), 4월 89명(8.0%), 5월 3명(0.3%), 6월 64명(6.8%), 7월 81명(7.9%)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올 들어 7월까지 광주의 출생아 수는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190명) 늘어, 전국 평균 1.9%를 크게 웃돌았다. 전남은 97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153명) 증가했다.

부산과 경남이 각각 2.9%로 7개월간 출생아 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2.6%), 전북(2.5%), 광주와 충남(각 2.4%), 경기(2.1%), 충북(2.0%), 전남과 서울(각 1.6%) 순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기온 뚝...당분간 쌀쌀하다

주말과 휴일인 16일과 17일 광주·전남지역은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떨어질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4~13도, 낮 최고기온은 20~23도로 일교차가 심해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6일 광주·전남은 고기압의 가장 자리에 들어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많아지겠다"며 "아침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일부 산간 지역에는 서리가 내릴 수도 있으니 농작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예보했다.

휴일인 17일에도 특별한 비 소식 없이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기온은 8~15도, 낮

기온은 19~23도로 예상된다.

한편 기상청은 다음주(18일~22일)는 기온은 평년(최저 3~14도, 최고 19~2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으며 맑은 날과 흐린날이 반복되겠으나 비 소식은 없었다고 예보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당신만을 위한 비즈니스 호텔**

런치 스페셜 - 해물지리탕, 추어탕, 육개장  
\*특선해물튀김 - 35,000

**특별특약**

- 객실: 전 객실 50% 할인
- 웨딩홀: 웨딩패키지 할인 숙박권 증정
- 동선지: 숙박권증정 및 패키지 할인

철순연·각종 세미나·대·중·소인회장 관리

**이딩크관광호텔**

예약문의 ☎(062) 227-8500  
www.hiddinkhotel.com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光州日報과 함께 행복한 주말을

광주·전남 국감 현장 > 2면 여성 특화보험 인기 > 4면 금연 성공법 > 5면 Books > 8·9면 페이스북 vs 트위터 > 13면 F1 레이서들의 각오 > 14면

**무안에서 출발하는 참좋은 푸켓여행**

**10월 23일 단 하루!**

무안출발 8B 09:30 ▶ 푸켓도착 13:10  
푸켓출발 8B 12:00 ▶ 무안도착 19:40

**초초특가**

<p>★첫 번째 상품</p> <p><b>실속 푸켓 3박4일</b></p> <p>₩499,000</p> <p><b>할인가 ₩299,000</b></p> <p>포함: 일급리조트, 아로마스파90분, 코끼리트래킹, 피피섬&amp;팡아만 특식4회 불포함: TAX 12만원, 기사/가이드팁</p>	<p>★두 번째 상품</p> <p><b>품격 푸켓 3박4일</b></p> <p>₩649,000</p> <p><b>할인가 ₩399,000</b></p> <p>포함: 특급리조트, 아로마스파90분, 코끼리트래킹, 피피섬&amp;팡아만, 특식4회, 전통안마(1시간), 아로마비누 불포함: TAX 12만원, 기사/가이드팁</p>	<p>★세 번째 상품</p> <p><b>초특급 푸켓 3박4일</b></p> <p>₩1,110,000</p> <p>포함: 초특급 카오락 JW메리엇리조트 리조트내식사, 미니바제공, 전일전자유 불포함: 유류할증료 7만원, 기사/가이드팁</p>	<p>★네 번째 상품</p> <p><b>푸켓 골프 3박4일</b></p> <p>₩1,070,000 (영) / ₩1,110,000 (하)</p> <p>포함: 리조트, 아로마스파90분, 파퓰 야시장관광, 그린피, 캐디피, 특식4회 불포함: 전동카(1인1카 600바트), 캐디팁(1인 18홀 350바트), 클럽하우스 증식(약 10S), 기사/가이드팁</p>
---	--	--	--

\*당시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 주관:참좋은레저(주)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21-1 MIES빌딩 11층 TEL:02)2188-4000 / FAX:02)599-3111 · 문화관광부 등록 일반여행업 685호 · 여행플랜처리센터:1588-8692 · 교통편: 항공 및 전경버스/전지역 · 추가 경비 없음(단, 개인적인 팁, 선택관광 별도) · 공동여행조건:여행경비 1인기준(공항세 포함/전 일정 1급/ 식사포함, 최소 출발인원:2명~. 영업보증보험 5억가입, 여행자보험